



南冥院報

THE NEWSLETTER FROM INSTITUTE OF NAMMYUNG STUDIES

제29호

2003년 3월

發行人:金忠烈/發行處:社團法人 南冥學研究院 / 住所:慶南 晉州市 鳳谷洞 14-21 / 電話:(055)748-9147 ~ 8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정기총회 (2003.2.21)

目次

題字:金忠烈

- 2-3 / 인사말씀 / 이사장 권정호
- 4-8 / 송우암 찬 남명선생신도비문 한역고 / 원장 김충렬
- 9-25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선비 - 「남명조식」 / 정옥자
- 26 / 소식 - 2003년도 정기총회
- 26-27 / 책소식- 남명 조식(한국의 사상가 10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선비 • 1728년 무신사태 고찰
- 28 / 남명선생 친필

인사말씀



理事長 權正浩

존경하는 南冥學研究院 회원, 연구위원, 이사님, 그리고 江湖 諸賢 여러분!

계미년 올해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인은 지난 2월 21일 南冥學研究院 정기총회에서 본원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영광스러운 마음과 남명선생의 사상과 위업을 어떻게 선양할 것인가 걱정스러운 심정을 갖고, 江湖 諸賢 여러분께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본원은 1986년에 발족하여 1994년 사단법인으로 개편되어 8년 동안 장족의 발전과 큰 사업들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매년 국제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남명학연구논총』을 11집까지 발행, 『남명원보』를 28호까지 발간했으며, 해마다 南冥祭를 거행하여 纘右人士들이 모여 선생의 학덕을 흠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南冥學에 크게 관심을 가져 경상대학의 남명학연구소, 서울대학의 남명학회, 진주교육대학의 진주문화교육원이 설립되어 남명학 연구와 교육에 큰 열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을 가져오기까지는 권순찬 전 이사장님, 김충렬 원장님, 조옥환 부 이사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열성과 노력의 덕으로 생각되어 존경의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2001년 8월에는 “南冥탄신 500주년 기념-선비문화축제” 기념사업을 펼쳐 선생의 위업과 사상을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경남도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본원과 조씨 문중이 주축이 되었고, 경상남도과 산청군, 합천군, 진주시 등 관이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南冥관련 시설확충인 유물전시관 건립, 묘소정비 및 덕천서원 보수, 남명학관 건립, 고택 및 용암서원 복원, 사적공원 조성 ... 등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南冥學研究院은 가시적 시설확충 사업에 관심과 노력을 하겠지만, 학술적 연구와 더불어 교육적 확산이란 양면활동을 동시에 추진해 나아가야 할 처지에 있으며, 그 양면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의 학덕을 크게 추앙하는 것은 실천유학, 민본사상, 절의정신은 물론이고 교육자로서 제자의 개성에 따른 교육으로 수많은 영재를 길러내어 우리 교육사에 큰 획을 그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임진왜란 때는 선생의 유지를 받든 50여명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필기하여 국난극복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하기에 1947년 이만규의 『조선교육사』에서는 “남명의 교육이념은 교육상 가치로는 퇴계보다 진정한 것이요, 유학방면으로는 퇴계보다 공자학의 바른 길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조남명의 교육사상은 이퇴계의 교육사상보다 훨씬 압도적인 것이다”라고 교육자로서의 남명 조식 선생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본인은 예비교사인 교육대학 재학생과 사범대 학생들에게 남명사상과 교육철학을 교육하고, 또 현장 교사들의 직무 연수시에 남명학을 강의하여, 이들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남명정신을 가르쳐 널리 확산하여,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것을 귀하게 바로 알고 세계인들과 어깨를 견주는 2세로 육성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하여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한 우리의 후손들이 도덕사회를 건설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 대한민국을 꿈꾸어 봅니다.

南冥學研究院 회원 그리고 江湖 諸賢 여러분!

본원의 사업에 지속적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내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2003. 3. 26

社團法人 南冥學研究院 理事長 權正浩

宋尤庵 撰 南冥先生神道碑文 韓譯稿

金 忠 烈(본원 원장)

一. 前 言 : 碑를 번역하게 된 緣由와 譯文의 底本

1. 碑를 번역하게 된 연유 : 2002년 10월 경, 남명학연구원 부이사장 曹玉煥 사장은 大谷 成運이 撰한 「南冥先生墓碣文」의 번역에 이어 尤庵 宋時烈이 撰한 「神道碑文」도 번역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한글세대가 아닌 필자의 한글 번역문은 도리에 난삽하다는 평을 듣는 까닭에 정중히 사양하였으나, 직책상 필자가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듭 청하기에, 물리치지 못하고 재차 笨拙함을 드러내게 되었다. 金石文은 한 번 글을 지어서 金石에 새긴 이후에는 推敲나 修改가 어렵고, 문장의 하자가 발생하면 두고두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선 번역문 초고를 院報에 실어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지적을 받아 정리한 다음 돌에 새기기로 하였으니, 諸賢들의 많은 질정을 간곡히 바란다.

2. 碑文의 경우 돌에 새기기 전에 이른바 屬辭記事한 撰述이 있어야만 하고, 그 글은 찬술한 사람의 문집이나 찬술된 사람의 문집 또는 家譜에 실려 함께 전해진다. 그러므로 「神道碑文」을 번역하기에 앞서 그 底本을 정하기 위해서는 돌에 새긴 글과 문집 등에 실린 글을 대조하고 검토하는 校讐 작업을 해야만 했다.

남명 선생의 「신도비문」은 우암 송시열의 글 이외에 來庵 鄭仁弘, 眉叟 許穆, 龍洲 趙綱 등이 찬술한 것이 더 있다. 『南冥集四種』에는 이 세 분의 글만 실려 있고 우암의 글은 빠져 있다. 반면 남명 선생의 직손으로서 文名이 높았던 復庵 曹垣淳과 그의 아들 弦齋 曹庸相이 重刊한 『南冥先生文集』에는 우암의 글만 실려 있고, 나머지 세 분의 글은 실려 있지 않다. 昌寧

曹氏文貞公派譜首編 경우에는 우암의 글만 실려 있는데, 당시 德山碑事件으로 南老가 갈등할 때 문중에서 취했던 입장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네 분의 글 중에서 우암의 글을 번역의 저본으로 택한 것은 오로지 조옥환 사장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3. 저본의 校讐 결과 : 저본은 모두 네 종류이다. ① 韓國文集叢刊 113 『宋子大全』VI, 312~314 쪽, 「南明先生神道碑銘并序」. ② 李翼成 譯本, 『南明先生文集』, 528~530쪽, 「神道碑銘并序」. ③ 昌寧曹氏文貞公派譜首編, 「神道碑銘并序」. ④ 山天齋 뒤 길가에 세워진 비석에 새겨진 글 등이다. 네 가지 板刻을 대조해 본 결과, 墓碣文의 出入이 의외로 많았던 데 비해 문자의 출입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몇 군데 문자를 잘못 새겼거나 添異 문자가 발견되어 아래 적어 본다.

1) 문자의 添異

『송자대전』을 기준으로 볼 때, 첫 번째 줄 “士益苟, 俗益偷” 가운데 ‘偷’자를 문집과 가보에서는 ‘渝’자로 바꾸어 쓰고 있고, 비석에는 『송자대전』 그대로 ‘偷’자로 새겨져 있다. ‘偷’자와 ‘渝’자는 크게 보아 같은 뜻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글이 구별한다면 ‘渝’는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변한 것으로 즉 ‘나쁜 쪽으로 변한 것’(變汚)을 의미하고, ‘偷’는 게으름·구차스러움·방사함·각박함 등의 의미를 지닌다. 『論語』「泰伯」의 “故舊不遺, 則民不偷”라는典故에서 민심이 각박한 것을 뜻하므로, 원문 그대로 ‘偷’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송자대전』 313쪽 상단 10항의 “先生氣宇高嶷”에서 ‘嶷’자는 문집과 가보에는 모두 ‘嶷’자로 고쳐 쓰고 있고, 비석에는 원문대로 ‘嶷’자로 새겨져 있다. ‘嶷’자는 嚴整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易』, 鼎掛「大象傳」, “君子以正位凝命”) 이를 좇을 경우에는 다음 문구인 “嚴毅正大”와 의미가 중복되고, 또한 「신도비문」을 쓸 때 참고했을 大谷의 글에는 “生而岐嶷”, “氣宇高嶷”로 쓰여 있으므로, 높을 ‘嶷’자로 바로 잡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이 때의 字音은 의가 아니라 억이라고 읽어야 한다. 典故를 살펴보면, 『史記』「五帝本紀」의 “其德嶷嶷”과 『詩經』「大雅·生民篇」의 “克岐克嶷”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들 문장들은 높고 무성한 것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생의 氣宇를 형용한 말로는 ‘嶷’자보다는 ‘嶷’자로 쓰는 것이 좋겠다.

『송자대전』 313쪽 상단 14항의 “容貌俊偉”의 ‘貌’자를 가보에서는 ‘兗’로 쓰고 있는데, ‘兗’은 ‘貌’의 古字이니 문제될 것이 없지만, 옛 글자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생소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운용되는 글자 ‘貌’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같은 줄의 “一刀兩段”의 ‘段’자를 가보에서는 ‘股’자로 잘못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2) 잘못 添刻된 곳

『송자대전』 313쪽 하단 16항의 “國朝錫文, 領議政封府院君, 是先生六代祖”라는 구절은 황당 무稽하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문집과 가보에는 모두 삭제되어 있고, “小監諱大莊, 是先生六代祖, 高祖殷, 命同正”이라고 첨가되어 있다. 그리고 高祖 殷의 직함에 대해서 墓碣에는 ‘中郎將’으로 되어 있는데, ‘命同正’이라는 말기 어려운 직함보다는 碣文에 따라 ‘中郎將’으로 고쳤다.

『송자대전』 314쪽 상단 10항의 “少懈者耶”와 “孟子曰” 사이에 ‘銘曰’이라는 글자가 잘못 새겨져 있다. 이것은 다음의 ‘銘曰’과 중복되므

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3) 篆額의 倒刻된 글자

이 경우는 필자가 30여 년 전(1972) 처음 山天齋를 찾았을 때 「신도비문」을 읽다가 당시 필자를 안내한 曹氏門中 長老님들께 지적했던 것으로, 아직까지 바로 잡혀지지 않았다. ‘南冥先生神道碑’라는 篆字 가운데 ‘先生’의 ‘生’자가 거꾸로 새겨져 있다.

이것은 글자를 새길 당시 故意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돌을 세울 당시와 그 후에도 많은 이가 이 비문을 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필자가 발견했을 당시 장로님들은 이를 확인하고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다.

4) 贈職과 謚號

신도비 첫 머리에 새겨진 ‘碑題名’에는 光海 7년에 선생에게 내린 贈職과 謚號가 새겨져 있다.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 文貞公…”이라고 되어 있다. 비문의 원문에는 없었던 것인데, 비석에는 정식으로 贈職과 謚號를 모두 쓰고 있다.

二 譯 文

남명 선생께서 돌아가시자, 선비들은 다시 구차해졌고 풍속 또한 퇴폐해지니, 뜻있는 이들은 선생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義를 귀하게 여기고 利를 천하게 여기며, 조용히 물러가는 것을 숭상하고 탐욕을 부끄러워 할 줄 아니, 선생이 끼친 功德이 실로 크다.

선생은 천품이 絶倫하였다. 아홉 살 때 큰 병을 앓아 모부인께서 근심하자, 도리어 “소자가 다행히 사나이로 태어난 것은 하늘이 반드시 할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 것이니, 어찌 요절할 리 있겠습니까?”라고 위로하였다고 한다.

成童이 되어 己卯士禍의 참상을 목격하고 과거에 대한 뜻을 접었으나, 부모님 명을 좇아 한 두 번 나갔을 뿐이다. 글은 左柳文을 숭상하였다.

하루는 周濂溪가 말한 “伊尹의 뜻을 뜻으로 하고, 顏淵의 학을 학으로 한다”는 구절을 읽고 크게 깨달은 바 있어, 山寺로부터 諸生들과 작별하고 돌아와 四書·六經 및 宋代 諸賢들의 책을 읽고, 밤낮으로 깊이 궁구하고 힘써 실천하였다. 손수 先聖과 周程張朱 五子の 像을 모사해 모셔 놓고 늘 景慕의 성의를 표했다. 圭菴 宋先生과 東阜 李相國이 『大學』과 『心經』 등을 보내오자, “이 책을 얻고서부터 두렵기가 큰 산을 짊어진 것 같았다”라고 跋文을 쓰고, 더욱 實質 공부에 정진하였다.

네에 文定王后가 수렴청정을 하여 大小尹이 서로 선비들을 모아서 乙巳士禍를 일으키니, 선생은 더욱 벼슬에 나갈 뜻이 없어 科業을 포기하고 지리산에 들어가 집을 짓고 편액을 山天齋라 하고 오로지 進德修業에만 정진하니, 경지가 더욱 높고 밝았다.

일찍이 晦齋 선생께서 齋郎으로 천거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뒷날 晦齋가 본 도의 관찰사로 왔을 때 만나기를 청했으나 역시 사양하였다.

명종 3년에 특명으로 품계를 뛰어 넘어 두 번이나 主簿에 제수했고, 조정에 있던 退揆 李 선생이 글을 보내 나오기를 권했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丹城 현감을 제수하자 사양하는 글을 올렸다. 21년에 判官으로 승진시켜 두 번이나 불렀고 이어 약재와 식물을 내리니, 사은하는 예로 비로소 소명에 응하였다.

왕이 인견하면서 治道를 묻자 선생은 “그 길은 책 속에 소상히 밝혀져 있으니, 신의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군신간의 情義가 서로 부합된 뒤라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백성들의 곤궁한 참상을 極陳하였다. 왕이 또 학문하는 길을 묻자, “반드시 心得한 바가 있어야 하며, 한갓 남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였다. 또 제갈공명에 대해 묻자, “공명과 漢昭烈이 함께 10년이나 경영을 하였음에도 끝내 한나라를 부흥시키지 못했으니, 신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음날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선조 초에 다시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면서 時弊 열 가지를 진언하였다. 2년에 또 부름을 받자, 글을 올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임금 스스로가 먼저 善에 밝고 身心을 誠正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 공부는 반드시 敬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라고 하고, 이어 胥吏의 積弊가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胥吏亡國論을 極言하였다. 宗親府 典籤에 제수되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 해에 큰 기근이 들어 왕은 곡식을 보내 위로하였다. 이에 사은소를 올리면서 “여러 번 獻策하였으나 아직도 실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재근하니, 그 말이 직절하고 강개하였다. 선생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왕은 어의를 보내 다스리도록 하였으나 도착하기도 전에 선생은 이미 돌아가시니, 隆慶 壬申(1572) 2월 28일이다.

지난 겨울 木穰(겨울 나무가 서리나 비에 쪼갠다가 흑한이 몰아오자 하얗게 얼어붙는 특이한 현상으로, 이는 현인이 죽을 때 예징으로 나타나는 이변이라고 한다)의 이변이 있었고, 중국의 星官이 우리나라 여행 관리에게 “少微星(處士星)이 빛을 잃었으니, 너희 나라의 高人이 머지않아 세상을 뜰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하였다. 슬프다. 哲人の 태어남과 죽음이 어찌 우연하다 하겠는가? 4월 6일 山天齋 뒷산에 장사지냈다.

선생은 氣宇가 岐嶷淸秀하고 氣像이 嚴毅正大하였다. 莊敬한 마음을 항상 속내에 품고 태만한 기색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깊숙한

방에 홀로 있을 때도 등어깨를 곧게 세우고, 새벽에 일어나 정좌하고 묵묵히 책을 읽고 깊이 사색하니 방 안은 아무도 없는 듯 조용했다. 학문은 오로지 敬義로써 요체를 삼고 좌우 집기에 銘을 새겨 警省하였다. 이렇게 주위에 접하는 모든 것을 수양 공부의 성찰로 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神氣가 峻潔하고 용모가 俊偉하며, 그 극기 공부는 一刀兩段하듯 명쾌하였다. 그러나 處事에 신중하여 마치 만 길 벼랑에 서서 깊은 연못을 굽어보듯 조심하면서, 결코 주저하거나 구차하지는 않았다. 평소에도 집안 사람들은 감히 쓸데없이 떠들거나 시시덕거림이 없어 집 안팎이 언제나 숙연하였다.

孝順과 友愛가 돈독하였다. 부모를 모심에 공손하고 조심하며 禮로써 봉양하여 늘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해드렸다. 甕을 당함에 피는 물을 애통해하고 모두 廬墓를 살았으며, 노복들에게 사소한 일로 와서 고하지 말라 경계시키고,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다만 옆드려 곡하며 答拜할 뿐 앉아서 말하지 않았다. 아우 桓과의 우애가 지극해서, 늘 支體는 헤어질 수 없다 하여, 같은 담장 안에 함께 살면서 같은 문으로 출입했다. 비록 산림에 물러나 살지만 시운을 슬퍼하고 나라를 걱정함이 至誠에서 우러나와, 매양 깊은 밤이면 홀로 앉아 슬픈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니, 이를 아는 이가 없었다.

벗을 사귄데 반드시 살피어, 그 사람됨이 뜻에 맞지 않으면 비록 고관대각이라 할지라도 오를 대하듯 물러섰다. 가장 깊이 사귄 이로는 成聽松·大谷·東州·李黃江·金三足堂 등 여러 군자이었는데, 그 서로 좋아함이 마치 金石 같이 굳고 芝蘭처럼 향기로웠다. 퇴계 선생과 서신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일찍이 퇴계에게 글을 보내 “태산복두처럼 우러렸다”라고 하였고, 퇴계는 선생을 “군자 出處의 義를 온전히

지킨 분이다”라고 평하였다.

선생은 사람을 가르칠 때 그 계절에 따랐고, 질문이 있으면 微言을 정밀히 분석하고 大義를 소상히 밝혀, 듣는 이가 확연히 깨달아야 그쳤다. 일찍이 “오늘의 폐단은 높고 먼 데로 달려가기만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절실한 것을 살피지 않는 것이 병이다. 성현의 학문은 그 단초가 일용사물의 사이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혹여 이를 버리고 차례를 뛰어 넘어 곧 바로 性理의 깊은 곳을 기웃거리니, 이는 盡性至命을 孝悌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인의 어려운 말과 깊은 뜻은 先儒들이 이미 서로 계승해가며 밝혀 놓았으니, 책을 읽는 자는 알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爲己之實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책을 읽다가 긴요한 대목에 이르면 반드시 두세 번 반복 음미해서 밝게 깨우쳐야 그쳤고, 이를 두 책으로 엮어 『學記』라고 이름 붙였다. 그 문집 몇 권이 세상에 전한다.

왕이 祭文과 賻粟을 내리고 大司諫으로 贈職하였다가 뒤에 領議政에 더하고 諡號를 文貞이라 하였다. 晉州·三嘉·金海 등 여러 읍의 儒林들이 모두 사당을 짓고 제향을 올렸다.

선생의 성은 曹씨요 휘는 植이요 자는 樞仲이며 본관은 昌寧이다. 시조 휘 瑞는 고려 태조의 외손이다. 이로부터 사대부가 끊이지 않았다. 小監公 휘 大莊은 선생의 6대조이고, 고조 휘 殷은 中郎將이요, 증조 휘 安翊은 생원이요, 조 휘 永은 벼슬하지 않았다. 考 휘 彥亨은 과거에 올라 내외 요직을 거치면서 맑은 이름을 떨쳤다. 妣는 仁川 李씨 忠順衛 휘 菊의 따님이다. 弘治 辛酉(1501) 6월 26일 선생은 三嘉 兎洞 외가에서 태어났다.

夫人은 曹씨요 父는 琇이니 南平人이다. 아들 次山을 낳았으나 요절했고, 딸은 萬戶 金行에게 시집갔다. 측실에서 난 아들 次石·次磨

는 현감이고 次訂은 護軍이다. 金行의 두 딸은 參判 金宇頤과 監司 郭再祐에게 시집갔다. 次石의 아들 旉明은 察訪이고, 次磨의 아들은 敬明·益明·復明이고, 딸은 參奉 鄭興禮에게 시집갔다. 次訂의 아들은 浚明(生員)·克明이고, 딸은 鄭顔에게 시집갔다. 旉明은 鬚을 낳고, 敬明은 曠·腕·嗽·晤를 낳고, 益明은 晬·晔를 낳고, 復明은 噉·瞞을 낳고, 浚明은 鼻·鼻·翕를 낳고, 克明은 景·旻을 낳았다. 鼻·鼻·翕 등은 모두 생원이다. 내외 曾玄孫 약간 명이 있다.

나는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 태어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으나, 한 녀의 어진 이들의 定論을 듣고 상상해서 헤아리건대, 천 길 벼랑에 우뚝 서서 해와 달과 빛을 다투던 기상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凜然히 畏敬케 하며, 그 綱常을 붙들어 세우고 風教를 떨치던 여운은 아직도 퇴폐한 풍속과 악습을 물리치고 사람이 정도를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입증하는 순간에도 오히려 敬義로써 제자들에게 부탁하니, 이는 이른바 “숨이 붙어 있는 한 조금도 해이함을 용납하지 않는다”(一息尙存, 不容少懈)는 강인한 생명 정신이 아니던가?

맹자는 “성인은 백세의 스승이니, 伯夷와 柳下惠가 그런 분이다”라고 하였고, 朱夫子는 이 말을 인용하여 東溪高公을 일컬었다. 만일 夫子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한다면, 선생의 脚下에도 이 말을 쓰지 않았겠는가? 아니 그러하겠는가?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에 명을 쓰니;

하늘이 주신 고결한 성품, 가슴에는 한 점 티끌도 없이 쇠쨍쨍하였어라.

옛 것을 신봉하고 義를 숭상하여, 名節로 스스로를 갈아 橫流를 막는 砥柱되어 우뚝 섰네.

山間에 물러나 집을 짓고, 唐虞를 노래하며 天地를 俯仰하니, 이것이 군자의 樂道가 아니던가?

오직 敬과 義만이 聖師의 가르침이라 하여 크

게 窓壁에 써 걸고 行道의 지표로 삼았다.

늘 마음을 경건히 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하늘의 上帝 모시듯 아침저녁 늘 삼가고 또 부지런했다.

왕이 옆자리에 두고자 했지만 비연히 일어나 산림으로 돌아와 初志一貫 聖學에 복용하였다.

敬義夾持, 克己工夫에서 기른 毅勇은 용과 범을 포박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學德과 聲名이 드높아지자 사림은 北星을 環拱하듯 景仰하고 傾倒하였다.

山頽와 木稼의 災異가 일어나고, 少微星이 빛을 잃는 징조가 있었으니, 哲人의 隱顯이 어찌 우연하다 하겠는가?

높은 산은 이미 무너지고 나라의 典型이 없어졌으니, 선비들은 矜式할 바를 잃었도다.

오직 그 風聲은 남아 頑惡한 이를 청렴케 하고 懦弱한 이를 일으켜 세우니, 나라의 명덕이 힘입어 영원하다.

頭流山은 하늘을 떠받치고, 德山江은 大地를 가르고 흘러, 선생의 道學은 땅처럼 두텁고 바다처럼 깊도다.

천만 년 역사는 가도 인물은 이어져 올 것이니, 선생의 이름은 더불어 하염없으리!

恩津 宋時烈 撰
延慶 金忠烈 譯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정옥자 지음

우리 선비

나의 빈 곳을 채워 줄 정신의 사표

하늘 아래 두려운 것은
오직 지조와 백성의 소리였던 그들
새벽에 일어나 손수이를 올리고
독서와 사색 속에서 도실용기술을 익혔던 그들
저녁 시간 친히 했던 자녀 교육에서부터
유산 분배에까지 남녀 차별이 없던 그들
눈길 닿는 곳 무한하지만
일상에선 고정관념 없이 살았던
참사람의 초상
내 안에 흐르는 울퉁한 마음의 원천



현암사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년(연산군 7)~1572년(선조 5)

경(敬)으로서 나를 밝히고 의(義)로서 나를 던진 선비

1501년(연산군 7년) 경상좌도慶尙左道 예안현(지금의 경북 안동) 온계리에서 퇴계 이황이 태어나고, 경상우도慶尙右道 삼가현(지금의 경남 합천) 토동에 서 남명 조식南冥 曹植(1501~72년)이 태어났다. 16세기 학파 형성기에 영남학파의 두 거봉이 된 이들은 같은 해에 태어나서 퇴계는 70세, 남명은 72세까지 장수를 했다. 퇴계가 경상좌도 사림의 영수라면 남명은 경상우도 사림의 영수로서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은 동인 정파를 형성했다. 그러나 영남학파를 바탕으로 한 이 동인 정파는 다시 퇴계학파의 남인과 남명학파의 북인으로 분립되었다.

16세기는 사회적으로 성장한 사림과 기성 정치 세력인 훈구파의 대립과 갈등 속에 사화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시기다. 한 세기에 걸쳐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귀족화한 훈구파와 사회 개혁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사림파의 격돌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정치관의 물갈이라는 절실한 시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실패인 사림과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의 격돌은 언제나 사림이 피를 흘리는 사화로 결말이 났고, 그러한 상황은 연속되었다. 칼자루는



南冥曹植先生畫像贊
 東天地統制之德 才高一世 智足以運天地之變
 鐘河嶽清遠之精 氣蓋千古 勇足以奪五帝之歸
 有泰山壁立之偉 原野如掌 之玉 自代而觀之
 有睨視萬物之氣 雖強如水而之月
 軍共為振家方未有二人志矣
 門人 鄒 述文

信月田畫師筆 志在揚吹師 十佳
 若田曹元文 日畫

조식 초상

언제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위였던 훈구파가 쥐고 있었던 것이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신진 사림인 조광조가 등장하여 성리학적 이상 사회를 위한 대개혁을 추진했지만 학문적 미성숙성과 과격성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때도 정권의 승자는 중종반정의 훈구 세력이었다. 훈구파의 전횡에 질려서 신진 사림에 힘을 실어 주려 했던 왕도 두 세력의 대격돌 앞에서는 결국 훈구파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사림이 미래라면 훈구파는 현실이었다. 왕이 추구하는 미래가 사림에게 있다 하더라도 왕은 자신의 오늘이 있게 한 훈구파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권이 훈구파에게 넘어가면 사림은 귀향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를 키우면서 때를 기다리게 된다. 향촌 사회에서 때를 기다리던 사림이 다시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된 것은 중종 후반기에 이르러서이다.

퇴계는 1534년 34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로서 사대부의 길을 걷게 되고, 남명은 1539년 39세로 초야에서 학문에만 전념하는 유일^{遺逸}로 인정받아 국가의 부름을 받았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선비가 수기^{修己}하면 당연히 치인^{治人}의 단계로 가서 학자 관료인 사대부가 되는 것이 상식인 그 당시에 퇴계는 그 길을 걸었지만 남명은 그 길을 거부하고 재야 지식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경(敬)과 의(義)를 학문의 신조로 삼으며

남명 조식은 삼가현 토동^{兔洞}(뜻골)의 외가에서 아버지 언형^{彦亨}(1469~1526년)과 어머니 인천 이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창녕^{昌寧} 寧, 이름은 식^植, 자는 건중^{健仲}, 호는 남명^{南冥}이다. 처가가 있는 김해에

서 산해정(山海亭)을 짓고 제자를 길러 산해선생(山海先生), 산해부자(山海夫子)로 불리기도 했다.

조식은 다섯 살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갔고, 일곱 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를 가르친 아버지나 동네 서당의 훈장은 의문에 의문으로 이어지는 그의 질문 공세에 질리기도 했다. 조식은 아홉 살 때 큰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다다른 적이 있었다. 그때 어린 조식은 아픈 것을 참으며, 상심한 어머니를 오히려 위로했다.

“어머니,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어찌 뜻이 없겠습니까. 소자가 남자로 태어났으니 반드시 소자에게 부여한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임무도 다 하지 못한 어린 소자의 목숨을 하늘이 거두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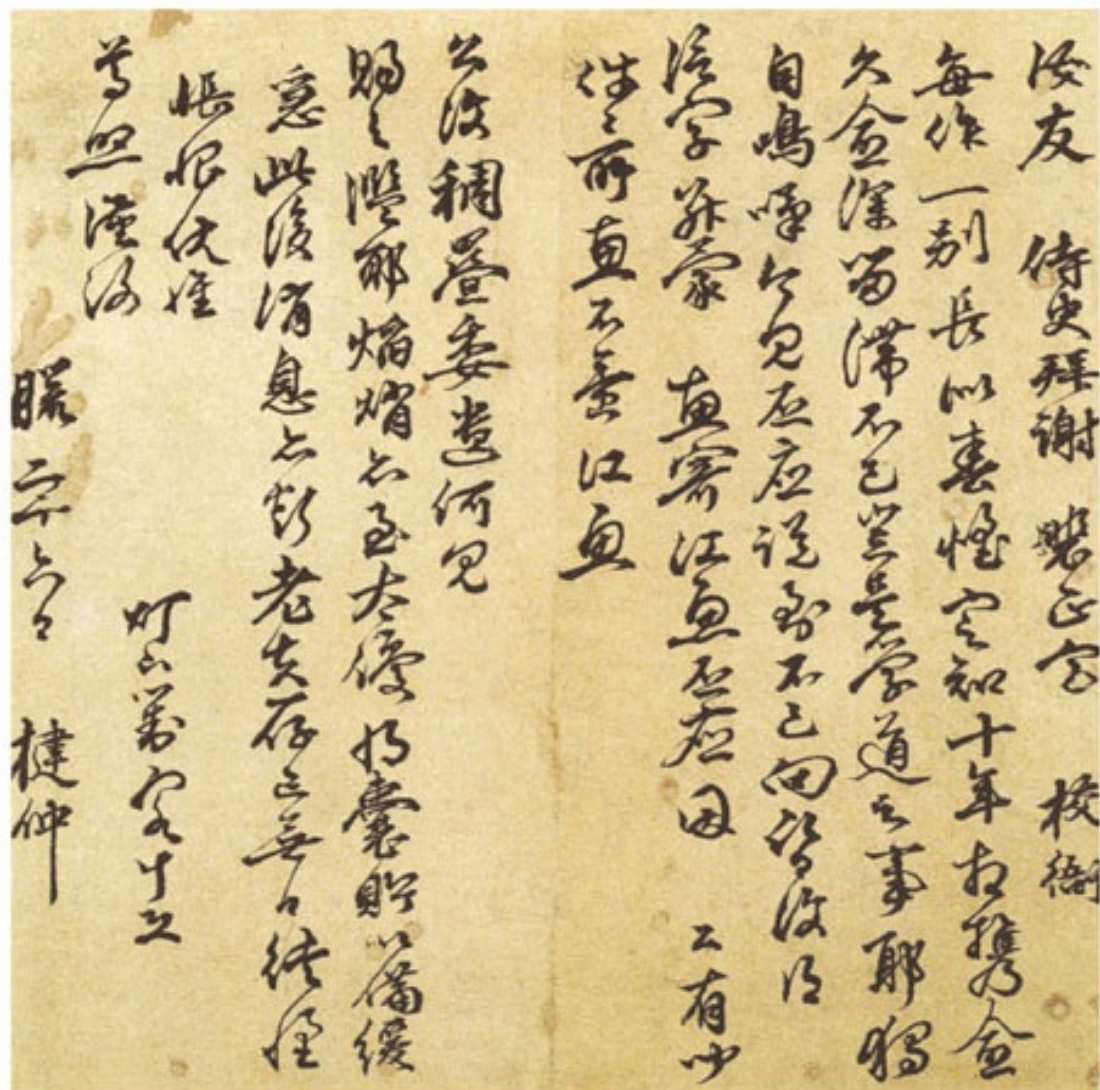
열다섯 살 때 조식은 단천군수로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함경도 단천에 가서 살았다. 이때 조식은 공부의 범위를 유교 경전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자백가·천문·지리·의학·수학·병법 등을 두루 공부하여 안목을 넓혔다. 한편 지방 관아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합리한 행정 체제와



해동지도. 삼가현에 조식이 태어난 곳이 표시되어 있다.

아전들의 비리, 백성의 곤궁한 삶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경험은 뒷날 그의 「무진봉사(戊辰封事(1568년 선조에게 올린 건의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무진봉사」 중 ‘서리망국론’은 아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는 우려와 함께 아전들의 비리실상을 낱낱이 적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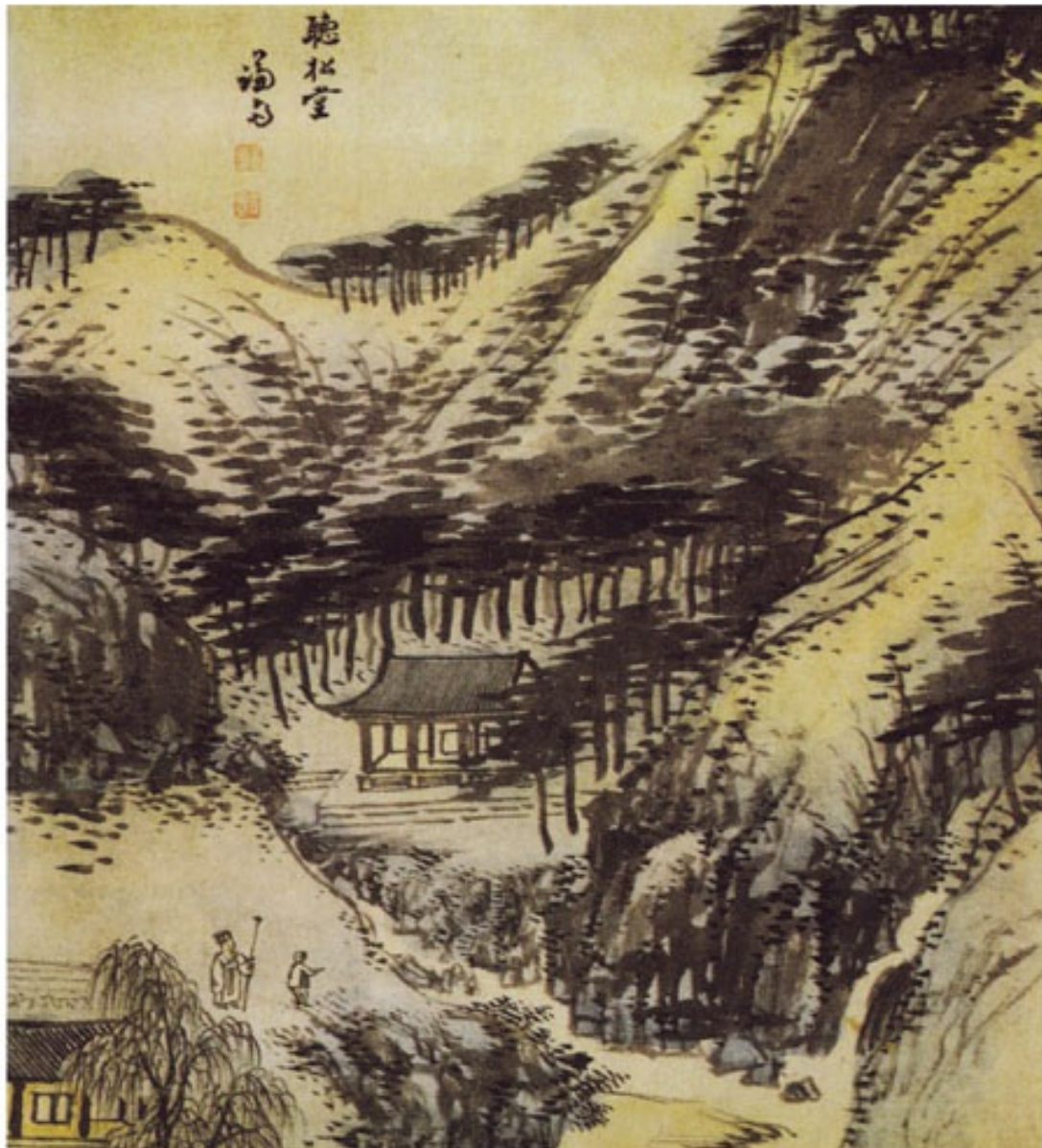
함경도 단천 시절에 조식은 자기 수양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마련한다. 꿰어앉아서 물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밤을 새우는 일과, 허리에 방울을 차고 다니는 일이 두 가지 자기 수양의 방법이었다. 그릇



조식, 「서간」, 24×24cm,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의 물이 흔들리지 않게 받쳐 들고 밤을 새움으로써 자신의 뜻을 가다듬고, 걸어 다닐 때마다 허리춤에서 나는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뜻을 일깨우려는 것이었다.

열여덟 살이 되는 1518년(중종 13년)에 조식은 아버지를 따라 서울 장의동으로 돌아왔고, 이 장의동 시절에 대곡 성운大谷 成運·청송 성수침



정선, 「청송당」, 종이에 엮은 채색, 33.5×29.3cm, 간송미술관 소장.
서울 장의동 시절 조식은 청송당의 주인 성수침 등 명망 있는 선비들과 교류하였다.

聽松 成守琛 · 동고 이준경 東阜 李浚慶 등의 친구를 사귀었다.

조식이 진사·생원 초시初試와 문과 초시에 급제한 것은 1520년(중종 15년) 스무 살 때의 일로서, 기묘사화己卯士禍로 또다시 사림 세력이 숙청당한 이듬해의 일이다. 조식은 기묘사화 때 숙부 조언경이 희생되고 부친이 좌천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사로仕路의 험난함을 깨닫지만, 어머니의 권유에 못 이겨 과거에 응시하게 된다. 조식의 어머니는 영락한 가문의 중흥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사대부의 길을 걷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조식의 생각은 달랐다. 반드시 중앙 정부의 벼슬을 해야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모친의 권유에 따라 진사·생원 초시와 문과 초시를 보고 급제를 했지만 조식은 진사·생원 회시會試(서울에 모여서 치르는 2차 시험)에는 응시를 하지 않고, 문과 회시에만 응시하여 낙방을 한다. 이때부터 조식은 과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로지 유학의 본질을 파고드는 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공자·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주자의 학문과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명세하면서 『주역』·『시경』·『서경』·『주례』·『예기』·『춘추』 등 육경六經과 『논어』·『맹자』·『대학』·『중용』 등 사서四書, 그리고 주돈이·정호·장재張載·주자 등 송대의 주자학자들이 남긴 글을 다시금 새롭게 읽고 연구하고 사색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조식은 경敬과 의義를 학문과 처신의 지표로 삼았다.

군자는 경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으로써 바깥을 바르게 한다.

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

『주역』 곤괘坤卦에 나오는 말이다. 여기서 ‘경’과 ‘의’를 딴 조식은 자신이 차고 다니는 칼에다 “안에서 밝히는 것은 경이요, 밖에서 결단하는 것은 의다(內明者敬 外斷者義)”고 하는 글귀를 새겼고, 옛 성현의 말씀 가운데 경과 의에 관한 글을 뽑아 베껴서 항상 옆에 두고 외우면서 사색했다. 그리고 뒷날 산천재(山天齋)를 짓고는 왼쪽 창문에 ‘경’자를 써 붙이고 오른쪽 창문에 ‘의’자를 써 붙였다. 또한 경의 상징으로 성성자(惺惺子)라는 방울을, 의의 상징으로 칼을 차고 다녔다.

이때 시작한 조식의 ‘경의’에 대한 강의는 그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도 ‘경의’였다.

“경과 의, 이 두 글자가 있는 것은 마치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두 글자의 의미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이다. 성현이 남긴 말씀의 귀결처는 모두 이 두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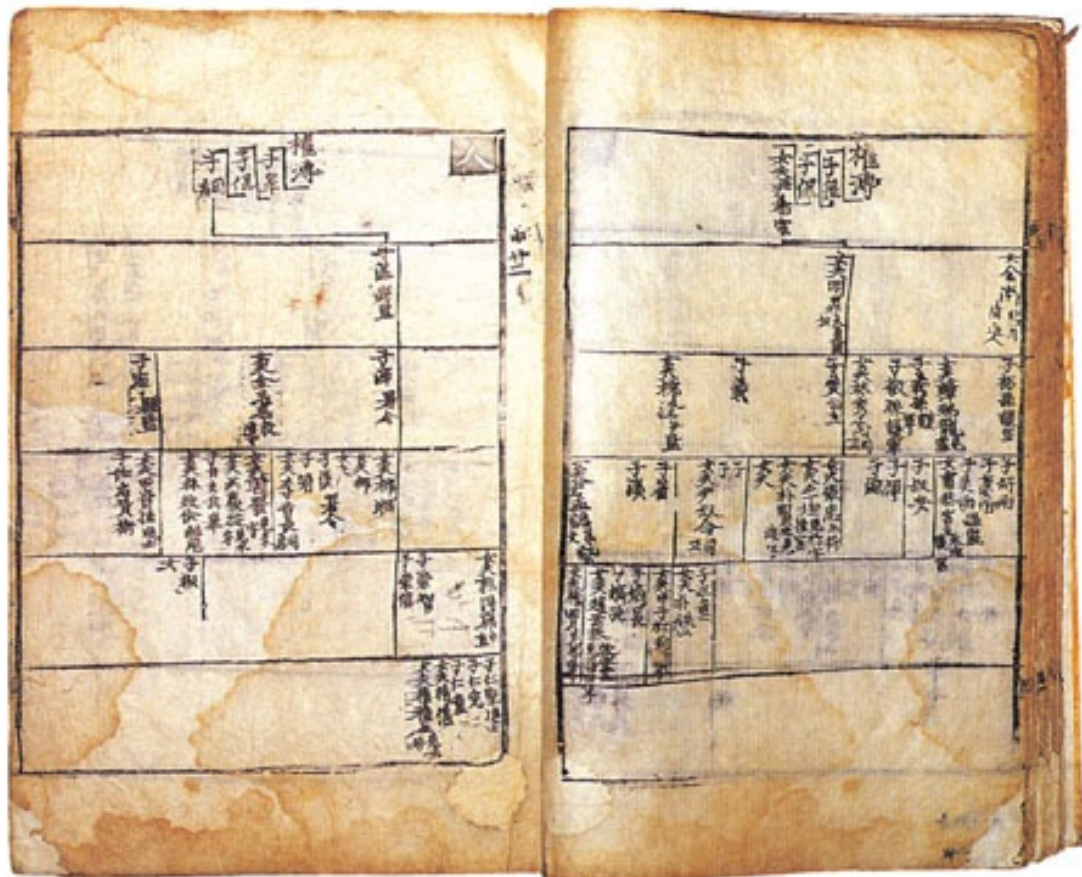
조식은 만년에 덕산에 산천재를 짓고 강학할 때, 들에는 매화를 심고, 창의 좌우에는 각각 경(敬)자와 의(義)자를 써 붙였다.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소재.

배우는 이들이 이 두 글자의 공부에 익숙해진다면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구나.”

죽음에 이르러서도 '경의'를 신념화한 조식의 모습이 선명히 나타나 있다.

처사(處士)의 삶을 찾다

조식은 1530년(중종 25년) 30세에 처가가 있는 김해로 어머니를 모시고 이주하였는데, 이것은 처사로 살면서 벼슬살이를 하지 않은 데 따르는



여성의 가계 계승 권리가 반영된 '안동 권씨 족보'. 남녀 구분 없이 출생순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조식이나 이항 등이 혼인을 통해 경제 기반을 얻은 데서 보듯 조선 전기와 중기의 여성들은 재산 상속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았다.

생활고와 무관하지 않다. 22세 때 남평 조씨南平 曹氏 가문의 사위가 된 조식에게는 상당한 재산가인 처가로부터 분재받은 전답이 김해에 있었다.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친정으로부터 받은 상당한 재산이 김해에 있었던 것이다. 생활의 안정을 얻은 조식이 김해 신어산 중턱에 정사精舍를 짓고 산해정山海



『남명선생학기류전南冥先生學記類編』, 규장각 소장. 조식은 제자백가를 비롯하여 공부의 범위가 다양했으나 성리 철학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따라서 성리 철학에 관한 저술로는 성리학자들의 기존 논의를 가려 뽑은 이 『학기류전』이 유일하다.

후이라 이름하니, 대곡 성운·청향당 이원清香堂 李源·송계 신계성松溪 申季誠·황강 이희안黃江 李希顔 등 많은 선비가 찾아오고, 뒷날 광해군대에 영의정을 역임하면서 최고의 행정가로 평가받은 동고 이준경은 『심경』을, 규암 송인수圭庵 宋麟壽는 『대학』을, 대곡 성운의 형인 성우成遇는 『동국사략東國史略』을 보내 온다. 한편 청도 운문산으로 가서 삼족당 김대유三足堂 金大有를 만나는 등 활발한 교유 활동을 한다.

남명 조식이 1533년(중종 28년) 33세의 나이로 향시鄉試에 응시한 것은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 때문이었다. 조식의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사대부가 되어 영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워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남명은 최종 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함으로써 과거를 통한 출사는 이루지 못하며 영원한 처사로 남게 된다. 남명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라이벌인 퇴계가 과거를 통해 출사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남명집, 중 퇴계에게 답한 편지 부분.

퇴계와 남명은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서로 존중하면서 서신만 주고받은 기이한 인연이 있다.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은 서신 교환을 통해 상대를 은근히 비판하기도 하였다. 조식은 무엇보다 당시 성리학의 이기 논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황이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을 불만스러워 하였다.

1536년(중종 31년) 36세의 조식은 결혼 14년 만에 첫아들 차산

次山을 얻고 가을에 있는 향시에서 3등을 한다. 1538년(중종 33년) 38세에는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의 추천으로 헌릉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1543년(중종 38년) 43세 때는 경상감사로 부임한 이언적이 만나기를 원했으나 거절한다. 그 이듬해인 1544년에 조식은 첫아들 차산을 병으로 잃고 연이어 1545년에는 어머니 인천 이씨를 여윈다.

남명 조식이 김해에서 삼가현으로 돌아간 것은 어머니의 시묘살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산소의 동쪽 언덕에 어머니를 장사지내고 3년 시묘살이를 한 조식은 삼가현 토동에 강학당인 계부당鷄伏堂과 제자 숙소인 뇌룡사雷龍舍를 짓고 정착한다. 이때부터 처사處士, 곧 재야 지식인인 조식의 활약이 시작된다. 조식이 처사의 길을 택한 것은 객

관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현실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조정을 진동시킨 사직상소문

1551년(명종 6년) 51세에 정6품직인 종부시宗簿寺 주부主簿에 임명되었지만 사양하고, 1553년 53세에 다시 정6품의 벼슬을 내렸으나 역시 사양을 한다.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던 퇴계 이황이 편지로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조식은 '눈병'을 핑계로 거절한다. 이때 퇴계와 남명이 주고받은 편지에서는 서로에게 보내는 애정과 존경의 정이 자못 절절하다. 퇴계는 '유일遺逸로 임명한 벼슬이니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며 남명에게 벼슬길에 나오기를 원했고, 남명은 '하늘의 복두성처럼 우러러 사모하던 그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나의 경륜 없고 식견 없는 무지몽매함에 있다'며 애정과 존경이 넘치는 편지로 거절했다.

1555년(명종 10년) 55세의 남명 조식에게 다시 벼슬이 내려진다. 삼가현에서 가까운 단성현(경남 산청)의 현감이었다. 서울로 올라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웃 고을의 현감을 하라는 것이니 이번에는 사양하지 못할 거라며 내린 벼슬이었지만 조식은 이른바 「단성소丹城疏」로서 이 역시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 단성소를 『남명집』에는 1555년에 올린 상소문이라 하여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疏」로 기록하고 있다.

“(전략) 나라의 근본은 없어졌고 하늘의 뜻도 민심도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큰 고목이 백 년 동안 벌레에 먹혀서 그 진이 다 말라버렸으니 언제 폭풍우를 만나 쓰러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낮은 벼슬아치는 아랫자리에서 술과 여색에 빠져 있고 높은 벼슬아치는 윗자리에서 빈둥거리며 뇌물을 받아 재물 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



『을묘사직소』(『남명집』 중)

장육부가 썩어 배가 아픈 것처럼 온 나라의 형세가 안으로 품을 대로 품았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략) 대비(문정왕 후)께서는 신실하고 뜻이 깊다 하나 구중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는 아직 어리시니 다만 돌아가신 임금님의 한 고아에 불과합니다. 백 가지 천 가지로 내리는 하늘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며 억만 갈래로 흩어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시렵니까. (중략) 옛날에 우리 나라에 신하처럼 복종하던 대마도 왜구를 대접하는 의례가 천자의 나라인 주 나라를 대접하는 의례보다 더 융숭합니다. 원수인 오랑캐를 사랑하는 은혜는 춘추시대 송나라보다 더합니다. 세종대왕 때 대마도를 정벌하고 성종대왕 때 북쪽 오랑캐를 정벌하던 일과 비교하여 오늘날의 사정

은 어떠합니다. (중략) 임금으로서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임금에게 원칙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됩니다.”

이황이 조광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점진적인 개혁의 씨앗을 뿌리고 신정치 세력인 사림의 입지를 다져 놓았다면, 조식은 강직한 기상과 강렬한 비판 의식을 가진 재야 사람으로서 거침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남명은 지나치게 투철한 정치 의식 때문에 현실 정치판에 뛰어들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퇴계와 남명, 두 사람에게서 사회 정의 구현의 이상을 교육에 걸고 새 시대를 준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구鄭逵·김우옹金字翬·정탁鄭琢 등은 퇴계와 남명 두 문하를 번갈아 출입한 퇴계와 남명 두 사람 공동의 제자이다.

조식의 대표적 문인들로는 정구·곽재우郭再祐·정인홍鄭仁弘·김우옹·이제신李濟臣·김효원金孝元·최영경崔永慶·오건吳健·강익姜翼·문익성文益成·박제인朴濟仁·조종도趙宗道·노진盧禎·하항河沆 등을 꼽을 수 있다. 남명 문인의 특징으로는 대부분 은둔하면서 학문에 몰두했다는 점과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거나 가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야 지식인으로 은둔해 있다가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직접 창칼을 들고 적군과 맞서 싸움으로써 정신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선비의 기백을 보인 것이다. 남명의 외손녀 사위인 의병장 곽재우에게도 남명이 병법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전해 온다. 제자들을 배출한 남명의 교수 방법은 자해자득自解自得이었다. 시비를 강론하거나 변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경서를 풀이해 주는 대신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 남명과 퇴계

경상좌도와 경상우도의 양대 산맥으로서 영남학파의 굳건한 버팀목이었던 퇴계와 남명의 제자들은 그 후 퇴계학파의 남인과 남명학파의 북인으로 갈라지게 된다. 점진적인 개혁의 씨앗을 뿌리며 신정치 세력인 사림의 입지를 다져 놓은 퇴계 이황과, 강렬한 비판 의식으로 무장한 말과 행동으로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주장한 재야사림의 영수 남명 조식. 그들의 성향은 달랐지만 지향점은 같았다. 자신의 안위나 영달보다 사회 개혁 의지를 불태우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자신의 학문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시대를 앞장서 이끈 퇴계와 남명은 양당 정치 체제를 준비한 선각이기도 했다. 학파 기반의 이념 정당인 봉당이 그 이후에 성립되고 양당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으니, 이념의 바탕 없이 이합 집산하는 오늘날의 지식인과 정치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식의 묘. 몇 차례 깨어졌다 다시 만들어진 조식의 묘비는 정인홍의 정치적 패배 등 그 문인들이 겪은 정치적 파란을 짐작케 한다.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소재.

남명 조식이 만년을 보낸 곳은 지리산 아래 덕산 사륜동이었다. 1561년(명종 16년)에 이곳에 산천재를 짓고 자신과 제자들의 강학 장소로 삼고 부단히 제자들에게 학문과 기개를 가르쳤다. 1572년(선조 5년) 2월 8일, 석 달 전에 발명한 등창으로 고생하던 남명 조식은 산천재에서 여러 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옛 성현의 '경의'에 관한 가르침을 외우면서 숨을 거두었다. 산천재 뒷산 임좌향(壬坐向)에 안장된 남명 조식은 대사간에 이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도덕이 있고 견문이 넓기 때문에 문(文)이요, 도를 끈게 지켜 꺾이지 않기 때문에 정(貞)'이라는 문정(文貞)의 시호를 받았다.

도학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 태어나 분발 정진함으로써 도학을 일으켜 세운 학자요, 그에게서 '경의'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제자가 국가 위난의 시대에 의병장이 됨으로써 성공한 교육자로 기록되는 남명 조식의 저서로는 『남명집』, 『남명학기류편(南冥學記類編)』 등이 있다.

현암사에서 발행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중 남명 조식 부분을 복사한 것입니다. 전재를 허락해 준 정옥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새로 나온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21일(금) 11시 감을가든 3층 크리스탈홀에서 남명학연구원의 이사·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의 미비한 사항과, 원장, 연구위원, 상임연구위원회, 연구부서, 출판부에 관한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였다. 또한 2002년도 결산과 2003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그 동안 남명학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권순찬 이사장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물러나시고, 권정호 국립진주교육대학교 총장이 새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신임 권정호 이사장은 안동권씨 북야공파로, 경남 고성군 하일면이 고향이다. 고성 하일국민학교, 마산중앙중학교, 마산상업고등학교, 진주교육대학,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와 진주교육대학의 교수, 총장을 역임하고, 국문학에 관한 저서와 논문이 다수 있으며, 관련 학회와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남명학과 관련하여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남명사상의 교육에 힘쓰고, 경남신문에 남명사상과 현대교육, 인문학 위기와 현대교육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남명원보 28호에 IT산업과 남명사상이란 시론을 발표하였으며, 조남명의 생애와 문학사상이란 논문을 진주문화 5호에 발표하였다. 또한 남명제의 초헌관을 맡기도 하였다.

○ 새로 나온 책 ○



남명 소식(한국의 사상가 10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이환 편저 / 예문서원 펴냄

이 책은 '한국의 사상가 10인' 시리즈 중의 한 책으로, 한국사의 대표적인 사상가 10인을 선정하여 그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정리함으로써 이들 사상가들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충실한 나침반을 제공해 보자는 것이다.

한국의 사상가 10인

에 선정된 인물은 南冥을 비롯하여 元曉, 義天, 知訥, 退溪, 栗谷, 霞谷, 茶山, 忠崗, 水雲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첫머리에는 편저자인 오이환 경상대 교수가 남명사상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라는 주제의 글에서 그 동안의 연구가 어떤 궤적을 그리며 진행되어 왔는가를 총괄적으로 정리한 해제를 실고, 제1부 남명과 그 학맥에서는 김충렬 남명학연구원장의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학문정신, 이수건 영남대 명예교수의 남명 조식과 남명학과, 제2부 남명의 경의사상에서는 이상필 경상대 교수의 남명 사상의 특징, 금강태 서울대 교수의 남명 조식의 『학기도』와 도학체계, 권인호 대진대 교수의 남명학과의 실학사상 연구, 손병욱 경상대 교수의 남명 敬義 사상의 기저로서의 정좌 수행, 제3부 남명 사상의 독자성에서는 손영식 울산대 교수의 남명 조식의 주체성 확립

이론과 사림의 정신(1), 남명 조식의 주체성 확립 이론과 사림의 정신(2), 오이환 경상대 교수의 남명의 儒·道 사상 비교연구, 남명과 陸王學, 김경수 경상대 박사과정의 남명의 불교관이란 논문을 실었다.

부록으로 남명연구논저목록은 저서, 편·역저,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일반논문의 목록을 실고, 이 책에 수록된 논문의 원게재를 밝혔다.

572쪽 / 23,000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선비

정옥자 지음 / 현암사 펴냄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와 규장각 관장으로 있는 정옥자 교수가 쓴 책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조선의 지식인인 선비는 淸賚 정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말은 하고야마는 서릿발 같은 기개, 일관된 지조 지킴과 종교적이라고도 할 만한 업숙주의 그 속에 간직한 유머와 여유로움, 탁월한 자기 제어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생활 태도 등은 오늘날의 지식인에게 주는 경종이라 하였다. 이 책은 선비가 무엇인가 하는 흥분을 앞에 하고, 다음에 조선 시대를 대표한 만한 선비를 시대순으로 정리하였는데, 여기에 수록한 인물은 조선 선비의 전형이라 할 만한 이들에게

또한 중인 출신 지식인인 조희봉, 망국기의 김윤식 같은 이도 포함하여 19세기 종인층 선비의 출현과 선비의 좌절·변절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선비는 敬으로 나를 밝히고 義로서 나를 던진 선비 南冥 曹植 외에 성리학적 이상 사회를 향한 꿈과 좌절 靜庵 趙光祖, 조선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선비, 나아감과 물러남의 의미 退溪 李滉, 조선 성리학을 구축한 誠心의 사대부 栗谷 李珣, 전란 후 혼란기에 다시 禮를 세운 학행지사 沙溪 金長生, 해학으로 절망의 시대를, 청빈으로 재상의 길을 걸은 오성대감 白沙 李恒福, 전란의 치욕 속에 피어난 이상주의자의 절개

淸陰 金尙憲, 육경학에서 실학의 근거를 제시한 도덕주의자 眉叟 許穆, 목숨으로 지킨 총절 三學士 : 洪翼漢·尹集·吳達濟, 도덕적 카리스마로 문화 국가의 방향을 잡은 선비 尤庵 宋時烈, 전환기의 처세, 정면기의 입지 陶谷 李宜瀛, 진경 문화 시대의 조선적 시인 櫟川 李兼禧, 조선의 금수강산이 붓끝에서 완성되다 謙齋 鄭澈, 새로운 학풍을 세운 재야 실학자 星湖 李瀛, 세계화의 기치 올린 비범한 선각자 燕巖 朴趾源, 『여유당전서』에 담은 격변기의 삶 茶山 丁若誥, 시·서·화에 능했던 천부적 학자 秋史 金正喜, 불우한 처지를 예술로 승화한 위항시인 龜山 趙熙龍, 위정척사의



정신으로 조선의 정체성을 지킨 재야 선비 華西 李恒老, 치연한 저항정신, 목숨을 건 구국의 실천 勉菴 崔益鉉, 不可不, 번뇌한 망국대부 雲養 金允植, 의병 정신을 독립 정신으로 물려준 의병장 毅庵 柳麟錫, 세계사적 격변기 비운의 세도가 芸槿 閔泳翊이다.

그 외에도 선비들의 일상으로 선비의 하루, 선비의 독서, 선비의 사랑방, 선비가 사용하던 문물들을 수록하고 있다.

424쪽 / 25,000원

1728년 무신사태 고찰

조찬용 지음 / 아이올리브 펴냄

이 책은 경남도의회 농수산·교육사회 조찬용 전문위원 쓴 것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李麟左亂 또는 武臣亂이라 부르는 武臣事變가 당시 정계에서 배제된 진보·급진적 少論인 峻少와 오랜 失勢 중에 있던 南人이 연합하고 양민층과 하층민 등이 연계하여 일으킨 소외계층의 변혁운동이라 정의하면서, 그 동안 왕조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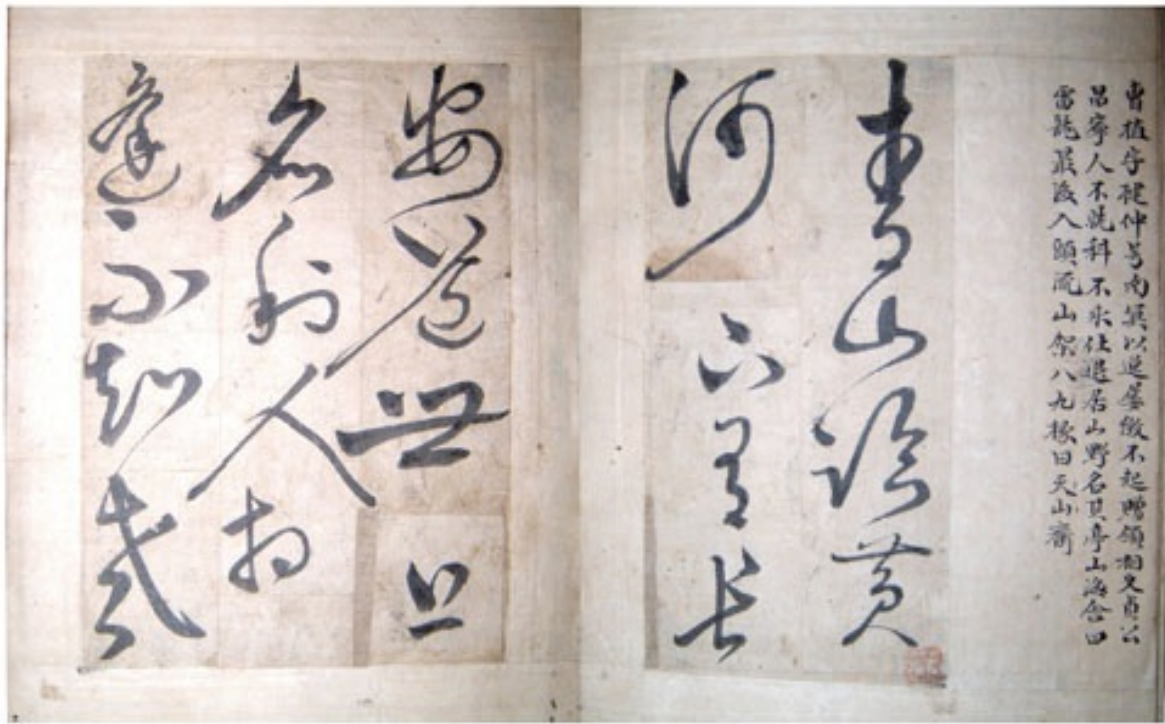
들에 의해 단지 黨爭史의 일환으로, 또는 이긴 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왜곡·편파되어온 소위 무신란에 대하여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술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무신사태 전의 사회정세, 무신사태와 그 후의 동향, 무신사태 일지를 기술하고, 부록으로 영조가 이인좌를 供問한 내용, 英祖가 무신란을 평가하고, 그 처

리 사항 등을 적은 敎書, 무신사태를 진압한 병조 판서 오명항의 공적을 찬양하고, 안성·죽산 등의 전투상황을 평가한 討賊 頌功碑, 무신사태를 평정한 경상관찰사 黃璿의 공을 찬양하여 세운 平穢南 碑, 무신사태를 진압하는데 일조한 성주목사 이보혁의 공적을 찬양하고, 합천·거창의 전투상황을 평가한 星山紀功碑, 합천에서 무신란을 평정



한 당시의 상황과 그 공적을 기록한 武臣平亂事蹟碑의 비문과 무신사태 주도층 인사들의 家系圖, 연보·비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10쪽 / 10,000원



초서로 쓴 남명선생의 친필이다. 현재 경남대 박물관 데라우찌 문고 翰墨清玩 첫권에 수록되어 소장되어 있다.

曹植 字樅仲 號南冥 以逸屢徵不起 贈領相 文貞公 昌寧人 不就科 不求仕 退居山野 名其亭山海 舍曰雷龍 最後入頭流山 架八九椽 曰山天齋(조식의 자는 건중, 호는 남명이다. 유일로 누차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정이며, 창녕인이다. 과거에 나가지도 않고, 벼슬도 구하지 않으면서 초야에 물러나 살았다. 정자를 산해정이라 하고, 집을 뇌룡사라 하였다. 말년에는 두류산에 들어가 작은 집을 지었는데 산천재라 하였다.)

靑山臨黃河 下有長安道 世上名利人 相逢不知老(청산은 황하에 임해 있고, 아래에는 장안 가는 길 있네. 세상에 명예와 이익을 쫓는 사람, 서로 만나 늙는 줄도 모르네.)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660-040 경남 진주시 봉곡동 14-21
전화 (055) 748-9147~8
팩스 (055) 748-9152

INSTITUTE OF NAM-MYUNG STUDIES
14-21 BONGGOK-DONG, JINJU
KYUNGNAM 660-040, KOREA
TEL : 055-748-9147-8 / FAX : 055-748-9152

INTERNET HOMEPAGE : <http://www.nammyung.org> / E-mail : ionms@nammyung.org